



조선인민군 제 2 집단군 정치부장

김 학 천 소장

김 학 천 소장은 1915년 2월 28일에 원동변강 우부리주 그로테코브 구역 신은촌 빈농 집의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그 당시 신은촌은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짐차적으로 러시아 이름으로 야리차 촌이라고 하였으며 1928년에 처음으로 꿀호즈(협동조합)가 조직되자 야리차 조합이라고 명명하였다가 농촌정리 협동화가 본격적 성격을 띠면서 당의 농촌에 대한 근본적 당적정치적 정책으로 되자 본 협동조합을 "볼타르나야 스웨스다(복극성)라고 칭하였던바, 이 명칭은 한인들이 원동으로 부러 강제 이주 이후에도 끊임까지 보존되고

있다. 본 협동조합의 조직당시에는 한인들이 어찌어찌로서야
 사람들도 많은 조합원으로 입회하였던데, 강제 어족화
 관련하여 한인들이만 풍아시야로 어족하여 들어오리, 기
 타 민족들은 원릉에 떨어져 없게 되었다. 회원들 중 절
 대 다수의 한인들이 이 조합의 기본지대로 들어 한인
 들어였기 때문에 그 조합의 명칭도 그대로 가지고 어족
 하여왔다. 1989년 농촌경리 협동화 초시기에 김정욱씨가
 원릉에서 20여호의 농민들로써 조직된 조합은 원릉에서 8
 년간 굳어지고 회원들이 확장되어 150까지 증가되며 회
 원들이 농업을 경영하였으나 우크베크란에 어족하여온후 조합
 은 더 확대되며 200여호의 농민들이 집단생활에 참가
 하였으며, 한농사를 아주 저렴한 수준에서 진행하던 우크베크
 원주인에 의하여 한인조합은 내 경보당 비확을 80-100센
 타까지 내는가하면, 생전에 경작하지 않던 목화생산도 지
 방기본민족들의 방조하에서 내경보당 40-50센타의 수확
 (당시 평균 수확 30-15센타)을 수출하였다. 그 당시 협동조합
 위원장에 김병화 선생이 임하시었다

김학천 선생은 원릉에서 복허 금성 끝호르에서 강제 어족
 전까지는 교원으로 임하시었으나 강제 어족 어후 1940년 복
 허는 협동조합 부위원으로 다음으로 1945년에 북한에 나
 가실 때까지 부위원장 겸 조합의 경제 부책임자로 아주 신
 임있게 임하시었다. 바로 어당시에 조합에는 경제 발전의
 성과로 연하여 26명의 사회주의 노동영웅이 배출 되었으며
 협동조합 위원장 김병화 선생은 조선 이공로동영웅 칭호와
 2차에 걸쳐 금 별을 수여 받았다. 김학천 선생도 교육사업
 어리고 조합 정치사업에 관련된 것은 원간의 높은 12명에게 칭
 호에 호감 되었으며, 또 어느정도 물질적 12명에게 관심있

은가 같이 있으나, 국가의 명령으로 조국의 위업을 수행하는 군복
 에 동원되라는 국가공인의 성성한 업무수행에는 최대의 영
 예로 생각하여, 복은 최자 다 이별하고 공화국 군사동원령을
 잘 지켜 수행하여 8년만에 억지로 리별하고 떠난 영등으로
 나가게 되었다. 소련 조국전쟁 초시기, 즉 1941년 7-8월
 독일 강도배들의 불의의 침공으로 야기된 독소전쟁 초시기, 그때
 에 소련 군대와 투고한 소련인 원들의 희는 얼마나 훌륭하며 소련
 의 영도는 얼마나 훌륭하였던 그때에도 한인들은 불신분자라고
 군대 복무에 증명하지 않았으나, 금일에 와서, 즉 독소전쟁
 은 소련의 대승리로써 증명되었으나 복무때문에 한인형편
 들을 군대에 증명하여 원등으로 내어보내든지 짐작은 할 수
 았으나 정확한것은 아직 알 수 없었으며, 원등으로 내어 보내면,
 한반도에 가까이 내어보내다는것은 야무기 별일이었나.
 아직 정식 명령은 없으나 대일본 조국해방전에 협력관으로 참
 가하게되리라는 예측적 연료를 많이 들었던바 그 말들은 야무
 기뻐고도 통쾌한 일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도 사랑스
 럽은 말은 야마 조국일것이다 하직 학천 선생이 원등에서 살
 고 있을 때에 자기조국에서 일제에 굴복하여 더는 살 수 없는 조
 건하에 로령지에 건너온 한인들이 항상 외우고 그리워하던 그
 조국에 대하여 태일-태일 들으며 자라던 그 일을 보느
 록 허한 조건에서 회상하게 될일을 대안하기 부쩍 생각해
 면서 창문으로 원등향을, 즉 선생이 태어난 고향향을 바라
 보게 되었다. 원등향은 조국은 아느냐 선생이 출생하여 자
 배를 낳은 부근에 정든땅이다 조국이라 이르러면 이것은 무
 선 명예가 있는 정치적의미에서 자기 목숨과 연결된 땅
 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리가 태어나고 자기 유년 시대, 학창
 시대를 지낸 어 땅도 어떻게나 짐이 되었는지 바로 소련
 쓰르 시를 지나 자기 형등조항이 푸르하여 있던 알리
 농촌을 지날 때에는 최창으로 그 현지를 내다 보면서 눈
 물은 눈타였다. 7월 말 일기에 유수리시 (어전 한인들이

이곳에 있을 때에는 소왕령 여타고 불렀으니 예로써 하여 제 1 원동전선, 25군단에 소속되어 동만국경 훈 방항에 배치되어 상부의 공적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은 1945년 9월에 평양을 해방한후 25군단
원전 사령부 변역관으로 제실 당시 김낙천 실생이다.

1945년 8월 9일 아침 5시에 소만국경을 돌파하고 훈 방항으로 진공하여 그 당일로 훈춘시를 해방하고 함흥 선생이 배속된 1618 탄코 여단은 거기에서 방항을 돌려 북조선 국경도시 추릉시를 향하게 되었다. 추릉에서 최후 선조들의 고향땅, 조선의 흥을 밝게 하여 감게 무양 한함강으로 고향상천을 사탕스럽게 흰면서 화령, 부령, 횡천-크4군 항구도시를 걸쳐 함흥을 지나 9월 30일에 평양시에 소련군 25군단 선발대와 같이 도착하게 되었다. 평양에 들어선 25군단은 일제시에 평양에서 도청으로 사용하던 건물에 본부를 정하고, 거기에 군단 참모부 군단 정치부를 만치고 평양시 한복판에, 일제시 평양 시청 건물 밑에 25군단 원전사령부를 조직하고 그사

평북 사령관으로 도하넌고 소장이 임명되어 북한에
조직되어 있는 각종 한인기관들을 자리에게 복종시켜 지
도하게 되었으나, 소련으로 부터 북한에 도착한 전체
한인 동역원들은 전부다 여기에서 복속하였다.

김학천 선생은 북한에 도착하자 북한 인민군대 참견에 권
적으로 복속하게 되었으나, 처음에는 대대 군사고문의 책임면역
으로 계시다가 1950년도 초에 중국인민 해방군으로 부터
한인족 대우군원들이 북한에 넘어 오게 되자 보병 연함부대
수가 대략적으로 증가하여 3개 개의 사단과 8개 군단이
조직되게 되었다. 김학천 선생은 1950년도 6.25 등쪽
상장당시에 제 32사 정치 부장으로 계시다가, 1951년
1월에 인민군대의 전반적 후퇴후, 32사가 동한 연길현
에 배치되어 있으니 32사의 정치부장으로 승격되었으
며, 1951년 7월에 32사가 38선 계선에 다시 남진
하자 상부의 명령으로 동사단은 6군단에서 제적되어
제 2 야전군단에 배속되었었다.



사진은 김학천 선생이 자기 가족과함께 1956년에
조선인민군 제 2군단 정치부장으로 계실시에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는 사모님 유도부, 장남 김그리그리, 차남 김말
렉산드르와 함께 찍힌것이다.

김학천 선생은 제 2군단에 복귀자 자기 직책을 아주 영예
롭게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제 2군단은 연세현 전련부대였
으며, 제 2군단 사령관은 평안(북) 지방의 전설적 영웅어신

최현 장관이시며, 제2군단에 속한 전체 전함부대, 부대
들은 항일 투쟁의 많은 전후 경험들을 소중한 귀국대토어였기
때 문이었다. 당시 2군단은 동북 전선에 속하여 출원어선
양구, 연세 계선에 배치되어 전진도, 후퇴도 하지 않고 진지
전에 고착되고 말았다. 전연 전후부대들은 산등, 계곡들을 리용
하고, 산고지 하천들을 리용하여 적대적 계선을 정화한 전후들은
극진히 굴복하고 1951년 봄부터 크다란 전후동작이 없어 상호
전후원들의 도덕적 사상성을 타비할 목적으로 각종 수단들을 리용하여
대적 선전 사업을 강화하면서 병행이 적후 정찰 사업을 강화
하였다. 군인어란 전쟁이 없어 장기간 전선에 배치되어 아무
런 전후 태세를 보전하지 하여도 긴장한 전후 행동이 없으면 내
부 개혁이 돌고 신경이 타비되어 항일 부대란 사실이 전연
되어 국력의 와해되는 법이다. 전쟁이 시작되지 벌써 3년
이 지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은 말한 것도 없어, 동북정리나 저
파괴되어 남의나라 구호 물자를 바라보고 사는 형편에다
전연 부대들의 공급-회장 물자는 아주 저음하였다. 이런 환경
에서 1951년 정초부터 연일군대 내에는 장전 부사 전연
병이 대동할 행하여 많은 군부대들은 전후력으로 전혀 상실
한 형편에 처하여 있었다. 당시 일내에 무장총일을 하려고
허헌 장담하며 수백만 인원을 동원하여 전쟁의 불길 속에
빠지게 하였으나 남한 인민들이 북한 공산권을 원하지 않
았고, 최약당한 그들의 세도와 인민의 자유를 돕아주지
않아 동원된 유엔군이 강하게 남한 땅을 정제하자, 북한
당국은 하도수없어 정전안판을 열고 정전을 지기 하게 하였다.
이렇게 무장투쟁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하자 북한 정권은
기 일성의 지도하에 그 전략의 실패의 원인을 다른 지도
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실책있는 반대파들은 백가지 고문
한 수책으로 안살, 허위공판으로 처단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사상검열 운동을 하리하고 모든 간부들을 처단하기 시작
하였거니와 사상검열 운동은 무자비한 간부청산 정책이었다.

1958년에 당전하여 남한 간부, 중국 항일투쟁 간부들의 출신
 이거이 공발되자 소련 출신 연변군 간부들은 청산하리 시각
 하였다. 사상검토 운동에서 소련파에 대한 기본 "최행"은
 소련가족주의, 소련사대주의 그 외에 전쟁시기에 "어떤-
 어떤" 지시들은 잘못되어 부연어 실패 되었다는 느낌이었다.
 연변군대 내에서 복복한 소련출신 간부들은 장영준으로
 반하여도 20여명이 남아있다. 김학천 소장은 제 2연단
 정치부장으로서 1958년에 동북련선 정치부장 겸 군사위원
 인 김철우 소장의 출격제대되어 자강도 도인변위원회 부장
 으로 강적 퇴와 다음차리는 반듯이 자기취해하는 것을
 가 말하리 않아 두 백일하여 돌아한 일이었다. 이원환
 평에서 사상검토 회의에 결단 1달 동안 고생한 다음에
 출격제대되어 허봉준은 정배사태에 내뺌까지 전역자
 원적으로 군대에서 제대시켜 소련으로 도주하게 하여
 달라는것이 상속였다. 이렇게 계획잡고 김학천 소장은
 총정치국장 허봉준에게 연변군대에서 제대시켜 소련
 으로 귀국시켜 달라는 청원으로 제출하였다. 청원도 아주
 순조롭게 정속되어 회의상의 결재를 받아 연변군대
 에서 제대된후 평양까지 소련대사관의 추송으로
 귀국 허가된 다음 1959 8월에 모스크바에
 돌아온 후 소련군대의 제대 추송으로 소련군 중좌의
 칭호로써 소련군 연금생으로 제정되었다. 자기 친척,
 고향친구 등이 살고 있던 두르베크 공화국으로 방향을 잡아
 하우게초허에 와서 멈출다음, 이곳 정부의 국경으로
 무상으로 살림 사색을 배정받았으며 아이들은
 대학에 추송하고 자기와 부인은 취직추송로 하였다.
 김학천 선생은 항상 조국을 그리어 하였으며, 조국의

조국의 통일에 대하여 열렬하였으나 고독한 생활은 하지
않고, 자기 생애의 앞어 밤 날까지 유로백공화국 건설성
설계국 관리 부장으로 일하시다가 1978년 6월 30일
에 별세하시었다.

김학원 선생이 별세하신 후 사모님 유 분은 양은 금
일과 문건강히 자기 장남과 같이 계시는바, 장남 김
그리고리는 무르베크 가스도관 배설관리국에서 책임
동역 기사를 일하고 있으며, 차남 김 알렉산드르는
타슈켄트시 함자군 내무부 부부장으로 위선있게 출근
하고 있다. 김학원 선생은 자기 녀원, 조국의 통일을 보
시지 못하고 눈을 감으시였지만 선생의 아들 형제
그리고리와 알렉산드르는 조국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
기기 위해 '조국 평화 통일 구국전선' 사업에 열성
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7년 7월 5일